

# “글라스노스트(개방)에는 페레스트로이카(개혁)로,,



조 천 규  
(본회 강원도 영동지부장)

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2년이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그 근본 성장전략을 공산품의 수출주도로 이끌어 왔다. 이 전략은 주효하여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 경제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다.

그러나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밀려 발전의 뒷전에서 오늘의 현실에 이르렀으며, 이제 개방화·국제화의 세계적 추세에서 그 근간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. 이에 업계 또는 정책관계자들은 축산물 가격안정제도 정착, 유통구조 개선, 사육농가의 경영합리화 등 늘 들어왔던 개념적인 목소리만 되풀이 할 뿐, 근본적으로 축산물 생산구조를 경쟁력 있는 그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에는 원자재의 수입의존 등 우리나라 축산업의 한계만을 의식한채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개혁의 의지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다.

그러나 업계, 정책당국 모두 이 시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핵심의 원 주위에서만 맴돌지 말고,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개혁을 과감히 시도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금후의 양돈산업은 타 공산품과의 능률경쟁은 물론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. 따라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코자 한다.

첫째, 현재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농·축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 원자재 내지 소비재 공급, 상호금융업무 등 현재의 주 기능 이외에 전국의 양돈장에서 생산된 도체로부터 등심, 안심 등 고가의 고급육 수집·수출업무 대행업자로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전양돈장이 수출용 고급육 생산에 참여할 수가 있어 빠른 시일내에 돈육을 전략적 수출상품으로 부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. 물론 거기

**양돈산업의 주체자나 당국이나 다같이 양돈산업 현실의 중요성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아래 획기적인 개혁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. 이러한 인식하에서라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나 자조금제도 입법화 같은 당면 문제는 걸림돌 없이 풀릴 수 있을 것이다.**

에는 저장·운반의 문제점 등 많은 노력과 투자가 따르겠지만, 기왕 생산자 단체가 생산자를 위한 것이라면 이제 구매업무에서 판매업무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.

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품종과 자질면으로 볼때, 대부분 유럽 미주지역의 대형종 위주로 개량되고 있어 사료급여체계 등 몇가지만 개선하면 출하 체중을 100~120kg까지 올려 전국적으로 막대한 양의 경쟁력 있는 수출용 고급육의 생산이 가능하다.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출업 당사자는 안정적으로 수출 채산성을 맞출 수 있고, 별도로 수출용 돼지를 추가 생산하여 그 잔여육이 국내 돈가의 하락을 부채질 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.

둘째, 양돈산업은 돈육생산 통합산업으로 과감하게 개편되어야 하겠다. 사료 생산업체 등 소위 계열화 사업을 계획과 공론에만 그치지 말고 그에 따른 계획을 과감히 시도해야 할 것이며,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·지원하여 공존공생의 길로 진입하여야 하겠다. 그리하여 양돈업이 돈육생산의 통합산업으로 개편된다면 그 생산물의 원가 절감은 괄목할 만한 것이며, 아울러 선진국 축산물과의 가격경쟁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.

셋째, 종돈업 전문지 발행업 등 우리나라 양돈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은 그 위치가 우리나라 양돈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심분 인식하고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투자, 인적자질 등을 신중히 숙고하여야 하겠다. 가능하다면 능력과 자질면을 고려하여 한정된 업체만을 집중 육성하여 그 분야의 특성상 항구적이고 막대한 투자를 가능케 하여 혼동과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다.

이상과 같이 몇가지 예시를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양돈업의 주체자나 당국이나 다같이 양돈산업 현실의 중요성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 아래 획기적인 개혁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. 이러한 인식하에서라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나 자조금제도 입법화 같은 당면 문제는 걸림돌없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. **■**